

# 양계의무자조금 도입이 급선무



**양**계업계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금년에 풀어나가야 할 난제를 파악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새해를 맞아 금년 양계산업 발전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1월 9일 축산관련전문지 4개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는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본회 이준동 회장의 진행으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 참석자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축산경제신문 김기윤 회장  
축산신문 이상호 사장  
한국농어민신문 윤주이 대표  
농수축산신문 전정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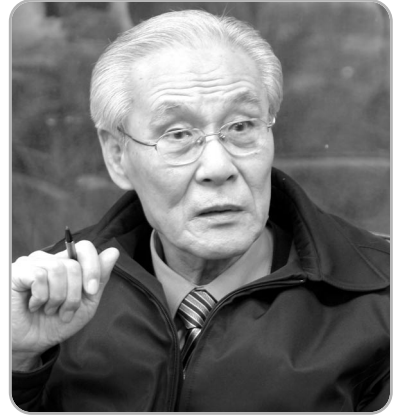
**▲ 이준동 회장** :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언론에서 보는 다양한 시각을 통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최근 정책자문위원회 발족을 통해 보다 전문성을 두고 정책건의 등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개보수하지 못한 내부 직제개편을 단행해 업무의 효율 효과를 기대해 협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양계의 무자조금이 시급히 풀어나가야 할 해결과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에서 바라보는 양계업의 문제점과 해결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김기윤 회장** : 최근 곡물가 2.2배, 유가 2.5배 인상되면서 한차례 업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요동되지 않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산란계의무자조금 건은 지난해 말부터 추진되면서 2월 중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빠른 시간 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이상 지체되도록 기반조차 잡지 못한 육계의무자조금은 양계업계에서 풀지 못한 큰 핸디캡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전 회장은 “하기 전부터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해보고 된다, 안 된다 결정하라.”고 말한 것처럼 타 축종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무자조금의 빠른 도입을 위해 양계농가를 비롯한 업계는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 전정희 대표** : 양계산업은 전 축종 가운데 생산성을 비롯해 브랜드 가치가 앞서가는 축종입니다. 현재까지 양계산업은 많은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선 기자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우군을 만드는 일은 협회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르기 위해선 협회 회원인 생산자들의 단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양계농가를 협회로 끌어들이며 목소리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상호 사장** : 2003년에 이미 도입한 한우자조금은 금년 조성목표액이 무려 203억원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되면서 한차례 파동을 겪었지만 한우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땅위에 자존심, 한우’, ‘한우 암행어사 출두야~’ 등 자조금을 통한 홍보 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다이어트 식품인 백색육 섭취를 권장하듯이 뒤늦게 시작하는 양계의무자조금이 도입된다면, 큰 효과로 빛을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이 각인되어야 할 것이며, 협회를 통해 결속력을



바탕으로 원활히 진행되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 윤주이 대표 :** 양계업계는 지난해 HPAI로 힘든 시간을 보내 왔습니다. 협회는 내부적인 구조개편과 통찰력을 발휘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내부직원의 경우 양계산업의 이해도가 풍부한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부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양방향 성장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자조금 문제는 현장에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협회로 자리매김 하길 바랍니다. 또한 TV 등 언론사에서 생산자를 무시한 채 오해소지가 있는 무분별한 방송으로 축산물 소비를 하락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협회가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켜 생산자의 보호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 이준동 회장 :** 현재 산란계의무자조금은 적절한 거출기관 선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이 차일피일 연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타 축종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산란계도 도축장(도계장)에서 시행할 방침으로 앞으로 대의원선출을 앞두고 있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체되고 있는 육계자조금의 빠른 도입을 위해 생산자를 대상으로 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에서는 보다 집약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자조금 사업의 빠른 도입을 위해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바른 기사와 홍보를 통해 양계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정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

